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변은 폐허가 되는가?

송 명 재

한전 원자력환경기술원 연구개발실장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서 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 때문에 나무가 말라죽고 야생 동물들은 기형이 되어 동네가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아 누워버릴 거라구요. 그렇지 않고 안전하다면야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있겠어요? 어디 안전하면 청와대 앞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지어 보시지요!”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 한마디가 쉽게 사람들의 귀전을 울리고,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안전하다면 청와대 앞에 처분장을 건설하라니...,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집에서, 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아마도 큰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동네 쓰레기통에 쉽게 버릴 것이다. 그 사람의 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은 음식물 쓰레기 처분장을 자기 집 마당에 설치할 용의가 있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는 조금 더 냉정하고 또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다.

프랑스의 파리에서 서쪽으로 가면 노르망디 지역이 나오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셸부르가 있다. 셸부르하면 1963년도에 열 아홉 살이던

청순한 여배우 까트린느 드뇌브가 열연했던 영화 「셸부르의 우산」이 떠오른다. 사진 학교 출신으로 59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등진 잭드미의 불후의 명작인 이 작품은 시네 샹송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셸부르에서 우산 가게를 하면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고 있던 까트린느 드뇌브는 같은 동네에 살던 자동차 수리공인 기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전쟁이 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전쟁터에 있는 기한테서 편지가 두절되는 사이 까트린느 드뇌브는 예쁜 딸을 낳는다.

한편 같은 시내에 있는 보석상 주인 까사르는 첫눈에 까트린느에 반해서 그녀를 쫓아다닌다. 기와 까사르 사이에서 정신적인 방향을 하던 까트린느는 결국 소식이 없는 기를 포기하고 대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까사르와 결혼하게 된다. 청년 기는 부상을 당해 1년 반만에 제대하여 셸부르에 돌아오지만 까트린느는 이미 떠난 후였다. 할 수 없이 자신을 키워준 양모의 딸인 마들렌느와 결혼한 기는 주유소를 차려 아들까지 낳았다.

어느날 기의 주유소에 벤츠 한 대가 들어서고 거기에서 까트린느가 내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흐르고 곧 바로 가슴에는 그리움이 물결치고 있었다. 그러나 각자의 가정이라는 굴레는 두 사람을

냉정하게 떼어 놓고 말았다. 까트린느는 차 안에 있는 소녀를 가리키며, “프랑소와즈는 당신을 닮았어요...” 하고는 차에 오른다. 벤츠가 서서히 주유소를 빠져 나가자 아내 마들렌느가 아들의 선물을 사들고 뛰어들어 왔다. 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들과 눈속에서 뒹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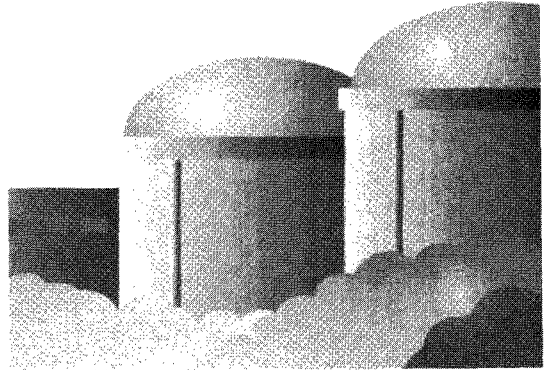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은 모두 한 폭의 수채화와도 같았다. 셸부르의 우산은 다른아닌 움직임은 예술 사진인 것이다. 셸부르의 항구에 가면 지금도 그 영화 장면에 나오는 단출한 식당이 있고 또 그 주인은 영화 촬영 당시에 자신이 음식 주문을 받았노라고 자랑하고 있다.

지금도 대단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 셸부르의 외곽에는 다른 아닌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있고 또 라망쉬라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있다. 라망쉬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지표를 얇게 파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든 다음 방사성 폐기물 드럼을 차곡차곡 쌓고 점토로 지붕을 덮은 소위 ‘천층 처분’ 방식이다.

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1969년도에 개장해서 1994년까지 약 25년간 운영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모두 일천오백만톤, 우리 나라의 드럼으로 환산하면 250만드럼 이상을 받아서 처분하였다. 그 중에는 핵연료의 재처리 시설에서 나온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30퍼센트나 포함되어 있다.

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현재 폐쇄되어 있고 앞으로 최소한 300년 정도는 환경 감시를 할 계획이다. 지금도 환경 감시를 위해서 처분장 안팎에 모두 30개소의 감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처분하려고 하는 방사성 폐기물에는 재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없고 또 처분하고자 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양도 라망쉬 처분장에 묻혀 있는 250만드럼의 삼분의 일도 채 안되



는 적은 양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방사성 폐기물이 처분되어 있는 라망쉬 처분장 주변의 셸부르 도시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으며 또 주변 경치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에 가서 직접 아름다운 경치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니면 그 주변의 경치를 사진으로라도 보고 싶다면 인터넷 주소 <http://tourisme.lahague.org>로 확인해보면 된다.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과연 누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변이 황폐해져서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할 것인가! 셸부르 항구는 인근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기 전이나 들어선 후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도시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항구로 남아있을 것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수십년간 운영해온 미국·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나 스웨덴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변이 황폐해진다는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고 운영한다면 폐기물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다. ☸